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 12호

송호신문 창窓

(주)BKR버거킹 코리아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송호인들의 다양한 취업문 열려…



우리대학교와 (주)BKR 버거킹 코리아가 지난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보건과학관 6층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날 시행된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간에 산학협력의 취지에 입각한 전문 인력 양성, 실습교육, 정보교환,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대학교 이기호 기획실장, 박영남 산학협력단장, 한철용 취·창업지원실장과 (주)BKR 버거킹 코리아 황선준 HR팀 과장, 추건일 HR팀 대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상호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 ▲교수의 산업체 연수 및 현장 실무자의 특강지원 협조 ▲학생 현장실습 중심 교육 실현, 실습지도 체제 공동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자격증 취득 및 우수인력의 취업연계 협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전문교재의 공동개발 ▲기술개발 과제 공모 시 공동 연구 추진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양 기관의 시설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 공동 활용 ▲기타 양 기관에서 협의한 사항 등 이다.

협약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정규직 영업 관리직(Manager) 채용 시 서류전형 및 실무진 1차 면접 면제'이다. 버거킹 영업관리직에 입사를 원하는 송호대 학생들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면제받고, 이후 나머지 면접과정(OJT-임원면접-교육)에만 참여하면 된다.

한편 협약식을 마무리 한 후, (주)BKR 버거킹 코리아 측은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와 함께 취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소선민 기자

우리대학교 횡성교육지원청과 MOU체결

횡성한우를 소재로 한 자유학기제 교육 개설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가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혜원~~)과 지난 5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송호관 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평 총장, 김익홍 사무처장, 김나영 평생교육원 원장,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 이영섭 교육과장, 장동진 장학사가 참석했다.

본 협약은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지역 향토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진학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특화교육과정 협력 체제 구축, 지역특화교육과정 『횡성한우를 부탁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시설업무 협조, 이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업, 이외 자유학기제 도입·발굴·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지원 등이다.

대동여중 학생은 21일부터 자유학기제인 '횡성한우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우리대학교 교수진으로부터 요리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기평 총장은 "~~전문대학의 영향과 기능이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오늘을 계기로 횡성교육지원청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우리대학교,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받아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전문학사학위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과정운영,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 32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로 이루어지며 인증을 받은 대학은 졸업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평가인증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대학교 간호과는 2012년에 신설되어 대학의 보건과학관 건립을 통한 교육기반 기자재, 시설 확충 등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2015년 국가고시 합격률 100%, 2016년 93.3%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졸업생 취업률도 100%를 달성하였다.

전민지 기자

우리대학교 원주 아트스페이스와 제휴 체결

우리대학교는 학생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위해서 원주 아트스페이스와 제휴를 체결하였다. 우리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메가박스 영화 관람료를 주중 6,000원, 주말 7,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주말/공휴일 가능, 중복할인 불가, 3D영화 제외), 락볼링장 신발대여 무료, 1300K 전제품 5% 할인, 카페베네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주말/공휴일 불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아트스페이스는 6층 건물로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으며,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 전화(033-744-2002), 홈페이지(http://www.art-space.co.kr)

전민지 기자

채용약정형 지역 체험관광 전문가 양성사업

협동조합·체험마을·교육농원·관광농원 중심



우리대학교가 5월 19일 송호관 2층 세미나실에서 횡성군과 채용약정형 지역체험관광 전문가 양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김옥환 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이창열 지청장,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남 교수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빛내주었다.

채용약정형 지역 체험관광 전문가 양성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정책방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정책방향, SNS 활용 홍보·기획 /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 농어촌 체험학습 지도사 과정, 응급처치 전문가 과정〉 등 지역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제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이창열 지청장은 "체험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에 필요한 지원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5월 3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선민 기자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개강식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19일 송호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16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창수 횡성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이기평 총장, 박영남 산학협력단장, 김나영 사업책임교수, 교육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교육은 개강식과 함께 오는 8월 30일까지 주 2회, 총 33회에 걸쳐 132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업 책임을 맡은 김나영 교수는 "한우산업의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간 중 육가공업체인 '케이프라이드'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교육 수료생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진 기자

우리대학교 '제1회 취업골든벨' 개최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식상자 열려…



우리대학교는 2016년 5월 12일 1시~3시까지 축제공연장에서 제1회 취업골든벨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취업골든벨은 새로운 교내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업 관련 지식에 대한 흥미 유발과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교내 취·창업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함이다. 참가대상은 전교생(학과별 참가인원 20명 이상)이고, 학과를 통한 사전접수와 행사 당일접수로 진행되었다.

이번 취업골든벨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상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페이스북, 취업지원관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학생들의 사전학습을 유도하였다. 이번 취업골든벨의 '최고 골든벨상'은 보건행정과 2학년 성진미 학생이 수상하였고, '송호 실버상'은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김주은 학생, '송호 브론즈상'은 간호과 1학년 남궁선영 학생이 받게 되었다. 실버상을 받게 된 김주은 학생은 "취업 골든 벨에 나가기 위하여 사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취·창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들을 알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소선민 기자

『제 2회 총장배 NCS SONG FESTIVAL』 개최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는~~ 지난 5월 12일 목요일 대동제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해와 증진, NCS 기반 통합교육과정운영 홍보를 위하여 『제 2회 총장배 NCS SONG FESTIVAL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5개 팀이 'NCS SONG'(작사 김록환, 작곡 안치행, 노래 김록한)의 원곡 또는 편곡을 준비하여 참가하였으며, 대회결과는 최우수상 치위생과 팀, 우수상 간호과 팀 그리고 장려상으로 유아교육과 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수상한 팀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으며, 참가한 팀은 이기평 총장님의 지원으로 우리대학교 카페 '그라찌에' 상품권을 3만원씩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슬비(치위생과 16)학생은 "이번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일주일에 4시간씩 3회 연습하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강원예선에서도 꼭 일등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NCS지원센터 김상백 선생은 "학생들이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능력중심사회에 따른 산업현장 맞춤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능력을 표준화하고 체계화시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므로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팀은 전원 지역 예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6 NCS SONG FESTIVAL』은 5월 28일 15시 한림성심대학교 관광레저센터(본관4층)에서 강원예선이 시작되고 본선은 9월 초 예정이다.

전민지 기자

2016 송호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 우리대학교 체육대회가 월계관(실내체육관),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체육대회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팀은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뷰티케어과 B팀은 간호과, 방사선과, 호텔외식조리과 C팀은 치위생과, 관광(대명)리조트과, 스포츠레저과로 구성되었다.

경기 종목은 미션계주, 발야구, 족구, 풋살, 피구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였다.

종합 우승은 C팀에게 돌아갔으며, 2등은 B팀, 3등은 A팀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순으로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전민지 기자

제 17회 송호대동제



우리대학교는 지난 5월 12일, 대동제의 막을 열었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대동제는 취·창업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골든벨, NCS SONG Festival, 재학생들의 화려한 장기자랑, 학생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게임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각 과별로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다함께 축제를 준비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미, 도끼&더콰이엇 등 가수들의 초대 공연으로 축제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22:00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였다.~~

한가람 기자

통학 버스 카드 도입제 및 시간 변동 안내



우리대학교는 식당과 통학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식 카드를 도입해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학버스 카드에 5만 원 이상을 충전하면 4%, 10만 원 이상 충전하면 5%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과 환불은 월~금, 11시부터 14시까지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전카드 분실 시 사무처에서 카드 보증금인 이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통학버스 일부 노선(횡성 노선, 남양주 노선)의 등교 시간이 변동됐다. 횡성강원에듀버스의 변경된 사항으로는 금요일, 공휴일,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횡성셔틀노선 시간은 21시 40분이었지만, 5분을 늦춰 21시 45분에 출발한다.

서울/경기(남양주)노선의 변동 사항은 평내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07시 18분으로 변동되었고, 07시 23분 평내 호평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07시 20분으로 변동되었다.

신재영 기자

제 9회 횡성평생학습 축제 및 제 94회 어린이날 행사에 찾아가다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뜻 깊은 봉사활동의 기회가 되어…





제 9회 횡성평생학습축제 및 제 94회 어린이날 행사가 지난 5월 5일부터 이틀간 횡성 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개막식에는 횡성군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아들의 재롱잔치와 에어로빅, 난타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아리 경연대회, 드론 영상 전국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요리 경연대회와 문해 골든벨, 취호 대회 등 다양한 놀이와 먹거리 코너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리대학교는 치위생과(치아 홈 메우기 놀이, 양치교습, 구취검사, 세균검사)와 사회복지과(연 만들기), 관광(대명)리조트과(바리스타 대회), 유아교육과(부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가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움과 흥미를 한 층 더 높여주었다.

에어 바운스 안전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한 유아교육과 1학년 전용훈 학생은 "뜨거운 햇볕에서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고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았다. 힘들었지만 참여한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해수 기자

'스승의 날' 맞이 이벤트 실시

우리대학교에서 2016년 4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목요일까지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다. 스승의 날 이벤트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재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림으로써 사제 간의 신뢰와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이벤트 실시 취지를 전했다.

학생들은 스승의 날 전후로 모교를 방문하여 우리대학교 홍보 및 학과 홍보 후 선생님을 찾아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들 학생들에 한하여 선착순 20명에게 문화상품권 3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안현욱(유아교육과 2)은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쑥스러웠지만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담임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다. 선생님과의 추억도 되살아나고 우리학교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박정현 기자

Self-up&Start-up 특강



지난 4월 27일, 취·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Self-up&Start-up' 첫 번째 특강이 보건과학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특강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특강이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이 날 강연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라는 주제로 '열정대학'의 유덕수 대표가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간호과, 치위생과, 사회복지과, 임상병리과 등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하위 프로그램으로는 〈너희들 탓이 아니야 : 교육과 환경, 우리가 문제가 아닌 이유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실습) :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의 천직의 3요소 : 하고 싶고 잘하는 일 우리도 있어요〉, 〈현실에서 적용하기 : 대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로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특강에 참여한 엄선용(사회복지과 2학년) 학생은 "다른 특강에 비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강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활동에 참여하면서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던 나의 목표들이 종이에 써지면서 명확해진 기분이 들었다"며 "또한 이 강연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고 전했다.

신재영 기자

2016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개최된 '2016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의 일부 경기가 우리대학교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교는 제 3경기장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요리, 제과제빵의 경기 직종이 웰빙관과 송호관 3층에서 나뉘어 진행되었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기능 개발 및 보급과 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고취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소재지(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최하며 17개 시·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후원을 한다.

대회 참가인원은 정식 직종 394명, 경연대회 100명으로 모두 493명이며, 원주공고(제1경기장)와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제2경기장), 영월공고(제4경기장), 원주교도소(제5경기장), 춘천기계공고(제6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개최하였다.

신재영 기자

유아교육과 특강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배우는 시간





지난 4월 11일 월요일 창조관 종합강의실에서 유아교육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별마로 유치원 이숭미 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의 주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사의 역할'로 예비교사의 마음가짐, 자율적이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교사로서의 태도와 역할, 보육 및 교육실습의 준비,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숭미 원장은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의 현장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뒷받침되어 실무가 결합되면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교육을 유아들에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지금부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매사 임해야 한다"며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아교육과 2학년 안현욱 학생은 "현장에 계신 원장님께 특강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다"며 "유치원 원장님에게 듣는 실제 현장 이야기가 앞으로 실습을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수 기자

학생홍보대사 '쏭투게더 3기' 위촉식



우리대학교(총장 이기평)에서 지난 3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학생홍보대사 쏭투게더 3기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11개 학과에서 선발한 학생홍보대사 '쏭투' 11명과 이기평 총장, 이기호 기획실장, 채용식 평생직업교육대학장, 김익홍 사무처장, 임용광 교학처장, 박영남 산학협력단장, 김나영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쏭투게더의 선발 인원은 신입생 기준 학과별 1명, 총 11명이고 활동기간은 선발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주요 활동은 교내·외 주요 행사지원(입학식, 졸업식) 및 홍보용 매체 제작 시 모델, 미디어 인터뷰 활동 등이다.

이번 쏭투게더 3기에 뽑힌 치위생과 서승혜 학생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쏭투게더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제 작은 힘이라도 우리대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학교를 빛내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혜진 기자

사진으로 보는 과별 단체사진

설렘 반 기대 반! 처음 대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기대되는 행사는 바로 엠티! 우리대학교 11개 과가 새 학기 적응 프로그램을 가졌다. 몇 개의 과는 엠티 대신에 자신의 과 전공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즐겁게 다녀온 사진을 보며 새 학기의 초심을 항상 간직하는 멋진 송호인이 되어보자.



간호과의 학과적응프로그램 단체 사진이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찍은
유아교육과 단체 사진이다.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찍은
임상병리과의 단체 사진이다.



관광대명리조트과 단체 사진이다.



보건행정과의 의료 정보 전문가 선서식 사진이다.



뷰티케어과의 단합 단체 사진이다.



사회복지과 단체 사진이다.



웰리힐리파크에서 찍은
스포츠레저과의 단체 사진이다.



방사선과의 단체 사진이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단체 사진이다.



호첼외식조리과의 단체 사진이다.

우리대학교에 새로 오신 교수님 & 조교선생님

우리대학교에 새로 오신 교수님, 조교님이 계신다. 유아교육과 교수님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연구실에서 상냥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주신 이정순 교수님, 방사선과 학생들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백민호 조교님, 임상병리과 1기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한솔 조교님을 만나보자!



유아교육과 이정순 교수님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유치원 교사로 10년, 유치원 원장으로 지낸 12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긴 소망 중 하나가 제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예비 유아교사인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대학생들을 8년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들과도 지냈고 행정업무도 담당했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보육교사 승급교육 강사로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학교에 참 좋은 인상을 받았고 지금은 유치원 현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유아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 유아교육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유아교육과의 특성대로 학생들이 참 활기차고 밝아서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교수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모토가 있으신가요?
- '첫 마음을 기억하자'입니다. 처음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을 때, 처음 원장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 처음의 설렘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예비 유아교사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졸업한 후에 행복한 교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5.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지만 나의 교육 철학이 없다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아교육 3년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사로서의 정체감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민지 기자



방사선과 백민호 조교선생님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과 조교로 부임하게 된 백민호라고 합니다. 조교를 하게 된 계기는 방사선과를 졸업한 후에 방사선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교도 저의 임무이지만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교로서 저는 학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방사선 안전 관리사로서는 방사선이 나오는 장비들을 관리하고 방사선에 학생들이 피복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방사선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 3월 새 학기에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서 많이 어색하고 적응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송호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존에 알던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어 덕분에 적응하기 수월했으며, 방사선과 학생들이 예의도 바르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힘든 점이 없습니다.

3. 조교님께서 갖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방사선 공업에 관련된 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여기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 사무실에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대할 테니까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효 기자



임상병리과 한 솔 조교선생님

1. 송호대로 오시게 된 계기?
- 송호대학교 임상병리과 1기 졸업생으로 실습조교와 행정조교를 3년간 지켜봐왔고, 후배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2.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입니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 보다는 해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일단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더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얻어서 한 층 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조교이자 선배이고 싶습니다.

4. 과 학생들의 첫 인상
- 임상병리과 학생들은 인사성이 정말 밝고, 활동적이며 실습이나 모든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5.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 학업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사랑하고 선후배,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하여 더 나은 임상병리사가 되길 바랍니다.

6. 앞으로의 다짐과 목표
- 앞으로 우리대학교와 임상병리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기자

학과 탐방

예비교사들의 꿈이 있는 유아교육과

인간의 가장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기 교육적 경험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문적인 지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21세기 창의적이고 유능한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를 만나보자.



◇유아교육과의 실습행사 한울제 사진



◇유아교육과 모의수업 및 동화구연 대회 사진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찍은 유아교육과의 단체 사진

1.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소개합니다.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글로벌 시대 유아교육의 키워드인 창의성, 감성, 인성적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교육이란 전인발달을 위한 인간의 기초교육으로 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의 각 영역별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유아기의 교육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을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고루 갖춘 유아교육 전문인으로서 양성하고자 합니다.

2. 유아교육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유아교육과에서는 교직 교과목 외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발달 원리와 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동화구연, 기악, 유아국악교육, 유아체육교육, 창작공예, 정보능력 등 실무와 연계된 다양한 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맞게 유아동작실, 기악실, 무대/공예실, 수업행동분석실 등 다양한 환경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유아 교육 활동 제반 이해 및 실무 역량을 향상, 교직에 대한 이해 및 경험, 교직자로서의 윤리와 사명감 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4주간 실시하고 있으며 참관, 수업, 실무실습 등의 현장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4주간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중 평생직업교육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자격증 취득과 전공수행능력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지도사, POP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시에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유아교육과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실무중심을 위한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현장적응능력향상 및 취업연계를 강화시키는 실용 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현장실무에 맞는 유능한 유아 교사를 배출합니다.

1인 1특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준별, 능력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율동, 동극, 인형극, 국악, 리듬합주 등 5개 전공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동아리에서 실무능력을 증진하고 실습행사(한울제) 참여 및 진행을 통하여 현장 교육의 계획 및 운영 능력을 고취합니다. 또한, 지역 내 평생학습축제 및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에피소드와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등의 주제 강연과 교직인·적성 검사 및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 전문성과 유능성을 갖춘 예비유아교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전민지 기자

한편, 유아교육과는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대학교와 협력하는 한강유치원 방문견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유아교육 전문기관 탐방을 통해 유아교육의 기반 시설 체험 및 현장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자매유치원, 한강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강유치원 원장님 인터뷰



1. 한강유치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한강유치원은 차별화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중심, 생명존중, 자연친화, 인성교육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송호대학교와의 협력 유아교육기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은 'THINK-I 프로젝트 놀이교육'(레고 교육, 델타 샌드 교육, 테마가베 교육, 스토리 북아트 교육)으로 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체 교사교육연수를 실행하므로 외부업체나 외래강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4층에는 한강 놀이치료 연구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이곳은 본 원아들의 문제 행동들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에서 놀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원아들을 치료 관찰하고 교사,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문제 행동이나 순간적인 행동, 다양한 갈등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런 유아들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기다림과 경청 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문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합니다. 만일 교사가 아이들의 언어(마음), 표정, 표현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고 교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유아교육의 본질은 아동 중심이며, 기다림과 경청은 교사의 자질 이전에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송호대 유아교육과와 우리학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수많은 학교의 예비교사, 초임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은 바로 이론과 실제를 따로 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초기에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직면하는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서 생활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성 부족과 효능감 상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동년배 이상의 원장님들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회자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졸업 하고 나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몰입합니다. 실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배우셨던 이론들안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론을 알아야 학부모 상담 시, 그리고 다양한 문제 직면 시,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없는 실제는 없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마주하는 현장에서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은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강유치원과 송호대 유아교육과는 협력유치원이므로 현장실습, 봉사활동은 물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유치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소선민 기자

교·수·칼·럼

송호인이여, 그대의 인생에 멋진 일만 가득하기를!

사회복지과 이 재 용 교수님

송호대학교는 특별하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였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 지역의 일꾼이 되기 위해 입학하고, 회갑연을 치룬 학생이 환갑을 맞아 인생의 청춘을 복지인으로 살고 싶다는 포부 속에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어우러짐이 우리 송호인이다.

모○○학생(21세)은 크로스컨츠리 선수였다. 힘든 운동에 지친 몸은 사고를 통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로를 고민하였다. 십여 년이 넘는 시간을 오직 국가대표의 꿈을 품고 전력했지만 단 하루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 순간에 자신의 꿈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선택한 사회복지는 그 동안의 힘든 훈련과 운동을 좌절 속에 고민하였던 생각들을 묻게 한 새로운 꿈이 되었다. 이○○학생(46세)과 이○○학생(21세)은 모자지간이다. 지적장애인 아들을 혼자서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엄마의 모정으로 학교를 같이 입학하게 되었다.

지금은 둘 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이다. 위의 모자지간의 학생들처럼 이○○학생(48)과 박○○학생(26세)은 모녀지간이다. 딸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어 스무 살이 넘도록 가정 밖을 나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같이 입학을 하였고, 지금은 딸이 자기 주장과 활동을 당당하게 수행해내 대견하다고 한다. 강○○학생(52세)과 김○○학생(48세)은 부부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학생이다. 평소에도 강○○학생과 김○○학생은 남을 돕는 일을 즐겨한 학생으로 사회복지인으로 지역의 일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입학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 '언제나 모범!' 이 영향이 같은 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의 소중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송호대학교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렇듯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대학교의 재학생들은 특별하다. 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작지만 강한 대학!' 그래서 늘 전국을 상위하는 최고의 열정 속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갈망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우리대학교는 임상병리과의 임상병리사 면허시험 100% 합격, 간호사 면허시험 100% 합격률, 스포츠레저과의 국가대표 배출, 호텔외식조리과의 인력양성체계, 유아교육과의 열정, 최고의 미(美)를 자랑하는 뷰티케어과, 보건행정사와 방사선사, 치위생사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수도권 대학보다 더 뛰어나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연구실의 불빛은 늦은 시간, 마지막 강의실의 불이 꺼진 후에도 빛나고 있다. 평일에도 휴일에도 불빛을 밝히고 있는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있다. 그 빛이 기반이 되어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의 불빛이 되었다. 이제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가지 간절함은 자신의 행복한 삶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을 빛나게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송호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투자와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학생들이 바라는 진정한 기대는 졸업 후부터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학창시절은 자신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위한 인내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만의 값진 행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진정한 송호인의 매력을 발산해 보기를 권한다. 인생의 행복을 얻는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대학교를 빛내는 학생

국가대표 하세호 학생을 만나다

우리대학교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소식에 송호기자들이 인터뷰에 나섰다. 수상스키 국가대표 하세호(스포츠레저과 3학년) 학생을 만나보자.



– 수상스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먼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야 합니다. 저의 주 종목은 트릭인데 국가대표 선발전은 슬라롬, 트릭, 점프 3개의 종목에 모두 참가하여 높은 성적을 받아야합니다. 1차, 2차 경기기록을 합산하여 국가대표를 선정하는데 저는 1차 선발전인 전남 영광 시합과 2차 선발전인 부산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15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수상스키는 슬라롬(장애물을 피하여 달리는 것), 트릭(65~70cm 보드를 이용해 공중돌기, 턴 묘기를 하는 것), 점프(점프대와 스키 로프 등을 이용해 비거리에 따른 미터 측정) 등 세 가지 세부종목으로 구성된다.

–평소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요?

현재 춘천에 있는 춘천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 지는 시간까지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하루 총 5회 정도의 라이딩을 합니다. 현재 주 종목인 트릭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열심히 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매 시합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훈련시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조교님들께서 시합장마다 오셔서 저를 케어해주시는데 정말 매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바람이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열심히 훈련할 것이고, 스스로 개인기록을 계속 세우면서 한국기록 타이틀까지 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송호인들에게 한마디

송호대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좋은 인연,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들, 선배, 동기, 후배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학교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학교생활 하기를 바라며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송호인 화이팅입니다!

신혜진, 이한효 기자

학생 가족 인터뷰

사회복지과 학생 가족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에는 같은 학번의 가족 학생들이 많다. 그 중에서 이인옥·이승엽 모자를 인터뷰 하였다.



Q. 입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인옥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2학년 이인옥이고 이승엽의 엄마입니다.

이승엽 :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2학년 이승엽이고 이인옥씨의 아들입니다.

Q. 사회복지과에 들어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인옥 : 아들(이승엽)이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를 전공한 복지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사회복지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 적응할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학과장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아들과 같이 다니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같이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승엽 : 저도 엄마랑 같이 입학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Q.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이인옥 : 저는 만학도라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과 특성상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 경험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 보는 것이 좀 힘이 들고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니 만만치가 않네요^^ 아이들 돌보랴 집안 살림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엽 : 수업은 재미있지만 간혹 힘들다고 느껴져요. 또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Q.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인옥 : 늦게 한 공부라 학교생활이 더 소중합니다. 더구나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의지가 되어요.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서 좋습니다.

이승엽 : 엄마와 함께 공부하니까 든든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좋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승엽 :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아동복지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나 횡성에서 아동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인옥 : 앞으로의 계획은 노인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공부해서 제 노후를 설계할 생각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 가족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다. 우리대학교 학생들도 미래의 꿈을 위해 더욱더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

신재영 기자

●●● 학생들의 발언대 ●●●

◆ 호텔외식조리과 1학년

저는 통학버스에 대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후 강의가 끝난 후에 집에 가고 싶은데 잠실 버스가 6시 30분에 있어서 일찍 수업이 끝난 날이면 시외버스를 타거나 6시 30분까지 학교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차비가 만만치 않아서 학교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상봉 가는 4시 30분 버스를 타보려고 하지만 금요일이면 항상 가득차서 타기가 어렵습니다. 잠실 가는 4시 30분 차량이 증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2학년

저는 월계관 이용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평소 일반학생들 월계관 이용시간이 18시부터라서 저희는 배드민턴을 치러 가곤 합니다.

월계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관계자로 보이시는 분이 면바지를 입고 출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월계관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복장에 규정이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관계자분이 이 코트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월계관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규제를 앞세워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사선과 1학년

저는 이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2시 30분까지라는 시간제한이 있었는데 일 년에 한번뿐인 축제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7시부터 12시까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 축제는 새벽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새벽까지 놀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한 곳은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한 없이 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대명)리조트과 1학년

저는 축제와 체육대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무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으나 구성이 단순해서 학생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규칙준수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축제, 체육대회를 위해서 통학버스 시간을 늘려주셔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서 학교에 감사했습니다.

연극제 감상

'2016 강원 연극제'를 다녀와서





◇ 영상문화프로덕션 이리

'2016년 강원연극제'가 2016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8일 동안 하는 많은 연극들 중 한 팀은 대한민국연극제 출전자격이 있다고 하니 연극경연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다른 연극제를 보는 것보다 긴장감이 있었고 더 신경 쓰였던 시간이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금을 주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 '거지'의 선택은 YES이다.

나는 위의 물음과 같이 사다리와 한 거지를 소재로 하는 원주 팀 우리네 땅의 '사다리'라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거지에게 돈을 주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수상한 남자는 거지에게 사다리에 오르지 않겠냐는 제안과 큰 거금을 내세웠다. 거지는 사다리를 오르면서 보이는 세상 밖의 이야기를 수상한 남자에게 전하는 거였고, 거지는 고민한 끝에 승낙을 하였다. 거지는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오르면서 자신의 깡통 안에 돈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속에서 순수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과 인간의 또 다른 면을 지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연극을 보며 다른 상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내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심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처음에는 정말 좋은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선심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악심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려낸다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름길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이익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내 허탕한 웃음을 짓게 되었다. 정작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려낸다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악심으로 다가왔든, 선심으로 다가왔든,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일 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마지막 연극단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큰 의미를 새기게 하는 고마운 소재의 연극 이였던 것 같다.

소선민 기자

횡/성/소/식

횡성의 4대 축제 일정 확정되어

– 토마토, 찐빵, 한우, 더덕축제

올해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를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축제 메인 주제를 '최고의 토마토와 함께하는 여름 가족 축제!'로 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추억에 남는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며,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토마토풀장 이벤트를 확대해 참여자와 경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 '횡성안흥찐빵축제'는 10월 7일부터 9일 사흘간 안흥찐빵마을 광장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25일 연시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4년 만에 부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9회 안흥찐빵축제의 축제 정신을 계승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올해 축제는 먹거리의 다변화와 주차장 문제 해소 등 축제장 주변 환경 개선, 전시부스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 닷새간 섬강 둔치에서, '청일더덕축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청일면 농거리 일원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가람 기자

나도 작가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주제로 한 편의 시를 지었다.

시 험

방사선과 1학년 남윤호

중간고사 끝난 후엔
비 내리는 시험지가 남아 있고

기말고사 끝난 후엔
재수강과 F만이 남아 있고

여름방학 끝난 후엔
후배들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듣고
내 옆 자리엔 동기 한 명이 남아있다.

시 험

사회복지과 2학년 김현중

걷는다.
그 험난한 길을
또 걷는다.
타오르는 사막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
시들어져버린 꽃들이 묻힌 그 길을

또 다시 걷는다.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또 지금까지도 걷는다.
타오른 사막 모래 알갱이에 흘린
내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걷는다.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향해

중간고사

방사선과 1학년 신광훈

중간고사는 시간이 지나도 무서운 존재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이 된 지금도
나에겐 큰 무서운 존재로써 존재한다.
이곳의 모두는 나의 친구이자 적!
공기 좋은 대학교에서의 살벌한 싸움이 시작된다.

드디어 시험 3일전 다들 모나미 펜을 놓지를 않는다.
나도 해야겠다는 위압감을 받지만
행동은 마음만큼 따라주질 않는다.

그렇게 시험 날이 다가오고 모두가 그렇듯 망했다는 말을 언급한다.
거짓말,, 다 잘 본거 안다
잘 봤으면서 괜히 하는 말 인 걸 알기에 답답함이 다가온다.
하지만 끝난 시험에 진정이 된다.

이렇게 나는 기말을 노려본다.